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9 비차도

‘다마무역’으로 차 공수한 북방 차문화

내몽고 초원에서 일어난 거란족은 매처럼 용감한 유목민족으로 흔히 말 위에서 나라를 세웠다고들 한다. 이들이 역사 속에서 빛을 발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천여 년 전인 916년으로 여러 부족을 통합해 요(遼)왕조를 세우고 이후 중국 북부의 광활한 영토를 200여 년간이나 지배했다. 한동안 이들의 역사는 중국의 정사가 아니라 인식 때문에 등한시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북방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거란족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긴 고분벽화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연재에서는 새롭게 주목받는 요대 벽화를 통해 북방민족이 향유했던 차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차도(備茶圖)’, 요대(遼代), 10세기, 중국(中國) 허북(河北) 선화(宣化) 장문조(張文藻) 벽화(壁畫), 170.0x145.0cm

1974년, 중국 허북성의 선화(宣化)지방에서는 요 왕조의 관리였던 장세경(張世景) 일가의 묘군이 발굴됐다. 묘실의 내벽에 그려진 벽화는 그 내용이 풍부하고 보존상태 또한 완벽해 주된 내용은 무덤 주인인 생전 모습과 집안에서의 일상생활이다. 때문에 벽화에는 당시 요나라의 풍습뿐 아니라 귀족이 즐기던 여흥의 정취가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그 중 장문조(張文藻) 묘의 전실(前室) 벽면에는 연회를 위해 여러 인물들이 차를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활발한 기질의 유목민족에게도 차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던 모양이다. 이는 고기 위주의 식습관과 식사의 부족으로 인해 배열병(背熱病)을 앓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북방에서 차를 생산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는 필요한 차의 전부를 송나라에서 수입하고 자신들에게 풍부했던 말을 수출하는 일명 ‘다마무역(茶馬貿易)’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송나라와 군사적으로 대치하던 상황에서 적국에 군사력을 증강시켜줄 말을 내어준 것이니, 이들에게 차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을 그대로 그려낸 것들이다. 화면 우측에는 머리의 중앙을 밀고 옆머리를 늘어뜨린 거란족 특유의 머리모양을 한 시동이 한껏 찌푸린 얼굴로 꿇어앉아 있다. 이 시동의 그 어깨를 딛고 올라선 아이는 대바구니에서 복숭아 모양으로 포장해 건조 중인 말차 덩이를 꺼내고 있다. 작은 소동을 일으키며 어렵게 취한 덩이차를 앞치마로 받쳐 들고 있는 거란족 시

동은 잠시 후, 앞에 놓인 다연(茶碾)에 차를 부수어 곱게 가루 낸 것이다. 이 말차 가루가 탁자에 있는 다완에 담기고 여인에 의해 연회장으로 옮겨지면 무덤의 주인이었던 장문조와 초대된 사람들은 이 완에 물을 붓고 다선으로 아름다운 차 거품을 내었는지 모른다. 화면의 왼편에는 차를 준비하는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일을 지시하는 여인의 눈을 응시한 모양인데 붉은 옷의 한쪽 아이와 거란족 아이가 섞여 친구처럼 어울리는 모습이 흥미롭다. 요나라는 한족과 이들의 문화를 포용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이처럼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 살았던 것이다.

유목민족의 기상을 대표하는 거란족의 벽화 속에는 이미 한족의 문화를 상당부분 수용한 당시의 정황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웅건한 기상과 풍부한 감정은 간결하면서도 호방한 필선과 화려한 채색을 통해 유감없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벽화고분의 자료들은 중원문화와 북방민족 간의 교류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뿐 아니라 송대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된 차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6 오세암(五歲庵)



설악산 오세암에 하룻밤 묵었던 적이 있다. 봉정암에 가는 길이었다. 늦여름 태양 아래 설악산이 꿈쩍 않고 서있고, 아이들 들락거리는 골목길 대문처럼 오세암이 열려있었다. 몇 해 전 초등학생 딸아가 정채봉 선생의 동화 ‘오세암’을 훌쩍거리면서 읽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때 나도 ‘오세암’을 읽었다.

뒷마루에 앉았을 때 종무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종소리 너머로 동화 속 오세암이 보였다. 길손이는 이곳에서 암자를 기다리다 관세음보살을 만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암자를 만났다. 책을 다 읽고 난 딸아가 내게 물었다. “아빠, 오세암 진짜 있어요?” 그 때 나는 오세암은 설악산에 있다고 대답해주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세암은 수 없이 많이 있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볼 수 없는 암자를 기다리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옛 판화의 세계

소강 스님이 염불수행을 하다 소강염불(少康念佛)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스님인 석소강이 백마사 선도의 영당에서 〈서방화도문(西方化導文)〉을 읽고 그의 가르침을 신앙하고자 “염불하면 1전의 돈을 주겠다”고 어린 아이들을 유인해 아미타불을 청념하게 하면서 정토종이 중국에 널리 퍼지게 되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소강(少康, ?~805)은 당나라의 승려로 정토종(淨土宗)의 제5조(祖)로 불린다. 진운(晉雲·浙江) 출생이며, 속성은 주(周)이다. 어려서부터 불전(佛典)을 읽고 가장사(嘉祥寺)에서 계를 받았으며, 용흥사(龍興寺)와 백마사(白馬寺)에서 공부했다. 뒤에 정토종의 대성자(大成者)인 선도(善導)의 영당(影堂)에서 〈서방화도문(西方化導文)〉을 읽고 크게 감동해 그의 가르침을 신앙하는 데 힘썼다. 장안 광명사에 가서는 선도의 헌문을 받고 염불할 것을 결심했으며, 목주 옹공산에 도량을 세우고 여러 사람을 교화해 염불을 권했다. 입적한 뒤에 세상에서 ‘후선도(後善導)’라고 불렸다. 저서에 <이십사찬(二十四讚)> <왕생정토서응진(往生淨土瑞應傳)> (文論, 공편) 등이 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석소강 스님은 돈을 벌여 어린아이를 유인해 말했다. ‘아미타불이 너

를 인도하는 스승이다. 한 소리 염불하면 너에게 1전의 돈을 주겠다.’ 그러자 아이는 돈을 얻으려고 힘써 소리 따라 이를 염불해 한 달 남짓 지나자 어린아이들이 염불해 돈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해 열 번 소리 높이 염불할 수 있는 아이에게 1전을 주었다. 이와 같이 해 1년이 지나니 어른, 아이, 귀하고 천한 사람 가릴 것 없이 스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미타불을 청념해 염불하는 소리가 도로를 가득 메웠다.” 정토 삼부경과 세친(世親)의 <왕생론>을 주요 경론(經論)으로 하는 정토종은 중국에서의 시작은 4세기의 혜원(慧遠)으로까지 올라가며, 6~7세기경 담판(曇鸞)과 그의 계승자인 도작(道愍) 및 선도(善導)는 정토신앙의 교리를 체계화하고 널리 전파해 정토종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소강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적극적으로 이를 널리 전파했다. 당(唐)나라 때의 정토종은 말법(末法)사상이 팽배하던 당시의 시대상과 맞물려 시의 적절하게 민중에게 전파시킬 수 있었다. 중국에서 정토종은 오늘날까지 독립된 종파로 존속해왔으며, 불교의 다른 종파에 속한 이들도 상당수 정토신앙을 받아들여 왔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학박물관 관장)

시가 있는 도량

11월에는 모두 낮게 앉는다

침엽수들이 어두운 구름처럼 서 있다
햇빛은 투명하게 물과도 같이
이파리 위에 내려앉고
바람은 가지 끝에서 윙윙 거린다
오늘 아침 일대의 공기는 무겁다
검은 뿌리를 딛고 위로 오르던 수액은
가지 끝에 멈추어 서고
등고선을 넘어 온 여름산들은
검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마을 저편에서 무엇을 허무는지
포크레인 소리가 요란하다
가디건을 어깨에 걸치고 창가로 간다
의자를 당겨 앉는다
다 마신 줄 알았던 찻잔에 남은
한모금 식은 커피처럼
내성적인 등 위로 운명선 같은 예감이
서늘하게 흘러내린다
산 아래쪽으로 머리 흰 할머니가 지나는 것을
오래 바라보다가 나는 바닥에 내려앉는다
11월에는 모두 내려 앉는다
수용소 뜰에 낮게 모여 드는 현상되지 못한 음화들
-김해경, <정신과 표현> 9·10월호



고관학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소강염불(少康念佛)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각(半郭) 272×18.0c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2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첫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경,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11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1월 5일 매주 (목)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2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모집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란

불교 상·제례 관련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해 사찰, 신행단체에서 상가봉사활동과 불교상례를 지도할 실무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받아 상·제례 업종에 진출하게 되는 전문 직종입니다.

- 교육기간 : 2009. 10. 24 ~ 2010. 3. 27 (6개월 과정, 총 108시간)
- 모 집 : 주간반 40명, 저녁반 40명
- 강 의 : 주간반(토) 오전10~오후3시30분, 저녁반(토) 오후3시30분~오후9시
- 장 소 :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 -3호선 안국역 6번출구(조계사역) -1호선 종각역 2번출구(조계사역)
- 등 록 금 : 60만원(교재, 실습비, 현장학습 포함)
- 교육내용
 - 불교 상·제례 이론과 실습
 - 불교장제 관련시설 현장학습
 - 봉안(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 상조문화와 외국장제
- 수료후 진로
 - 사찰·신행단체 상가봉사활동, 운영관리
 - 봉안(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관리자
 - 장례행사, 회원관리, 홍보활동 등
 - 장례관련업체 진출

◆ 수료 후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 발급 ◆

- 교수진 :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리학과 출강 교수
 - 불교 상제례 실습 : 유재철 - 크스님들 (법장, 승산, 석주 외) 장례와 최규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진행함
 - 불교 상제례 이론 : 손남숙 박사 - (사)한국생활문화연구원 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참어
 - 불교의례, 천도제 : 구미래 박사 - (사)성보문화재연구원 기획실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 02) 739-4444